

연중 제33주일
(평신도 주일)

기도서 P. 479 C해

제1독서(말 라	3, 19-20)
제2독서(테살후	3, 7-12)
복 음(루 까	21, 5-19)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복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제13회 평신도의 날 강론원고□

이 겨레 복음화에 더욱 힘쓰자!

평신도 주일에 즈음하여,

수 많은 순교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지 어언 200년이 됩니다.

이번 우리는 제13회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 위에서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숨겨진 모든 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도록 기도 드립니다.

제 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발단한 거대한 선풍은 순례하는 지상의 교회에 새로운 색채와 변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느님백성의 전체 특별히 신품과 수도신분에 속하지 아니한 평신도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천명하면서 평신도가 세상의 소금과 누룩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넓게는 하느님의 나라, 좁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게 한 가운데서 가장 잘 현존시키는 주역들입니다.

우리 겨레 스스로에 의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진 교회 사상 유래가 없는 한국 천주교가 평신도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보전되어 왔다는 긍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784년 이승훈선생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1886년 “한불수호조약”으로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기까지 100여년의 박해속에서도 한국천주교회에서는 60여년간을 성직자 없이 신도들의 힘만으로 전수되어 오면서 1만여명의 순교자를 낼 만큼 평신도들은 위대하고도 찬란한 신앙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한국천주교 전례 200주년을 앞두고 우리 한국의 백삼십만 신도는 자랑스런 선열들의 얼을 되찾아 이 나라 이 겨레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 분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은 세계는 오늘날도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 현실에서 숨겨진 진리들을 발굴해 내고 제력과 권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인류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만들려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시키는 데에 그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란 누구를 두고하는 말인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특히 영적 질서와 현재 질서의 두 영역 안에서 스스로 사도직을 열심히 수행하는 평신도들입니다. 그들은 사제적 예언적 왕직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이 세계에 진정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며, 현재 질서를 그리스도와 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인류의 기쁨과 희망을 제시하고 슬픔과 번뇌를 없애는 길을 진지하게 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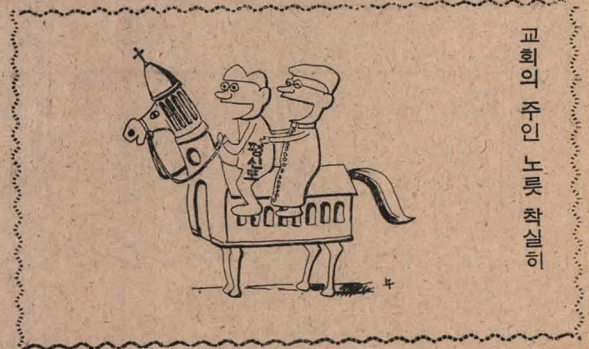
구하고 제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5년이 흘렀고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발족한지도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둡고 답답한 여건 속에서도 평신도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헌신적 노력과 협력으로 근년에 와서는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평신도란 단지 미사에만 참여하고 자기 구명만을 위한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보잘것 없는 신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폭발적인 평신도들의 재교육으로 인한 의식개발, 각 액션단체를 통한 능동적인 봉사활동, 자발적 자율적인, 재정적인 자립성 등 정말 눈부신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사명을 다 하려면 수 많은 장애와 시간을 극복하고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교회 현장의 제 4장에서 말한 하느님 백성안에서의 평신도의 위치,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결론 이어지는 평신도의 사도직이라는 제목은 2,000년 가톨릭 교회사에 혁명적인 개혁을 가져다 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적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성신이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먼저 생활화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 사도직 실천의 터전과 그 양식은 원하는 곳으로 부는 성령의 입김에 따라서 각양각색이고 결코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평신도 각자에게 주어질 은사와 사명판의 특수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례(영세) 받은 모든 평신도는 사도직을 수행할 권리와 실천의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할것
(2면에 계속)

숲 정이 산책



교회의 주인 노트 작성하기

(1면에서 계속)

없이 신분, 직업, 교양, 환경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사도가 되고 선교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깊이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며, 협력자이고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이 선택한 자녀이며 용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에 살면서 그 세속안에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심어 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의 세력의 침범속에서 타락하고 무력해진 세속에 생동하는 진리와 기쁨, 사랑과 평화 그리고 희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실현되도록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평신도들의 활동없이는 교회의 현존과 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계적 질서속에서 순명하는 자세가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고 간에 근본의 바탕은 그리스도적 사랑속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겸손된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기 분수대로 수행하는 평신도, 자기 능력대로 수행하는 평신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나 또 그 자신을 위해서나 아무데도 쓸모없는 지체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하느님으로부터는 선택을 받은 귀한 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분명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맡겨진 온전한 사도직의 원천은 성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으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대로 평신도 사도직의 풍요한 결실은 분명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일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사도직을 참으로 훌륭하게 해낼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냅니다"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현실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구가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곧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업에서 목적삼은 뜻과 그 동기를 가져다가 우리들 사도직의 행동과 뜻과 동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든 것을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참고 견디셨음과 같은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일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희망과 사랑을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수행해야 할 사도직

특수환경 속에서의 사도직

조직적 공동체 안에서의 사도직

등에서 각기의 카리스마에 따라서 사회안에 용감히 뛰어들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980년도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읍니다. 평신도 사도직협의회는 그러한 변화속에서도 모든 관계자들이 평신도 재교육 도시 농촌간에 유대강화 시성시복운동 강화, 평협 조직강화 등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많은 성과를 보았다고 자부하는 하지만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교회와 신도 여러분에게 충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돌아오는 1981년도에도 80년도 사업을 계승하고 교회 창설 200주년, 교구설립 150주년을 더욱 뜻있게 하기 위하여 전 신도가 그리스도안에 한몸으로 뭉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바탕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에 항상 같이 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 이름으로 계획되는 어떠한 사업이고 간에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매해 바쳐주시는 정성어린 헌금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아낌없는 협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다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의 분발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바치는 여러분의 헌금이 이나라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많은 협력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나라 가톨릭 성교회의 무한한 번성과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성공과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내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980년 11월 16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주교님 귀국]

지난 10월 8일, 한국 주교단의 정기적인 교황청 방문 및 교황님 알현과, 유럽의 제 교회 사목방문차 출국하셨던 본 교구장 김주교님께서 12일 오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귀국하셨다.

귀국하시던 날, 교구청에는 50여분의 사제와 많은 평신도들이 마중을 나왔고 주교님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고 한결같이 기쁜 표정을,

그동안 쉼지 주인없는 집같이 허전하고 쓸쓸하게 조차 느껴지던 주교관이 갑자기 생기감이 들고, 활기가 찬 모습에 서로가 흐뭇한 마음들...

주교님께서는 어수선한 시국속에 두고온 집안이 늘 걱정도 되셨지만 여행 일정이 여의치 않으셔서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셨단다.

어쨌든 건강하신 모습으로 귀국하셔서 기쁘기 그 지없읍니다. "주교님, 더욱 더 건강하소서..."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② 5669 번

주 최 남 수(아블로니오)

(가톨릭 센타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버킹검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아동복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학약국 옆
전화 ② 4451 율리안나

“추수 감사제에 초대합니다”

에년에 볼수 없던 이상 기후로 흉년을 맞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헤아려 보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품종 선택권마저도 포기하고 강제 농정 시책 아래 한포기의 벼라도 살려고 고생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노력의 댓가는 얼마이었습니까?

농민의 피와 땀의 댓가는 흔히 값없이 취급당해 왔습니다, 농가 소득의 주요 원천인 쌀값만이라도 제값을 찾아야겠다는 뜻에서 6년째 쌀생산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 농정당국에 농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연년히 농민대회를 열어 추수감사제와 함께 널리 농민의 의사를 모으고 표현하는 순수한 농민의 광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금년은 거들 것이 없어서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추수 감사제가 무엇이나고 생각되었지만, 추수를 해놓고 무거운 마음의 농민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뜻을 깊이 생각하시고, 농민들이 받아야 될 노력의 댓가는 얼마나되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농민 형제 여러분!

올 추곡 수매가는 금년 도매물가 상승율에도 크게 못미치는 선에서 일단 발표되었지만 농민의 의사는 표현되어야 하고 후년에도 계속 쌀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여기 가난한 농민들이 하느님의 제전에 오곡 백과를 봉헌하며, 후년은 더욱 살기 좋은 농촌 사회가 이루어 지도록 기도하는 80년 추수감사제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십시오. 허물없이 만남시다.

그리고 앞날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 뜻을 모아봅시다. 뜻있는 분들의 동참과 성원을 진심으로 열망하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0년 11월

일 시 : 1980년 11월 26일 11시 장 소 : 전주 전동 천주교회

80년 추수 감사제 준비 위원회

□ 행사내용 : <제1부> 추수 감사제

우람한 농작의 장단 속에 피땀흘려 추수한 작 지방 특산물이 농민들의 손으로 직접 제단에 봉헌됩니다. 주교님의 주례와 신부님들의 공동집전으로 추수에 대한 감사와, 평화스럽고 정의로운 농촌 사회를 애타게 기원하며, 농촌 변화를 위한 우리의 각오와 자세를 가다듬는 의식을 갖습니다.

<2부> 농민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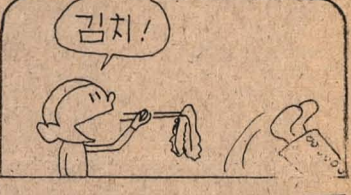
쌀값 조사의 공로가 많았던 조사원을 격려하고 금년 쌀 생산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며,

흥겨운 가락속에 막걸리 잔치로 사작되는 축제는 농민들의 고달픈 생활을 농악, 탈춤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서로의 만남을 나누게 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참가 요령

- ① 참가대상 : 농민, 성직자, 수도자 그의 뜻있는 모든분
- ② 참가자는 11월 26일 11시까지 전동 천주교회에 도착하여 입장을 하여야 합니다.
- ③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과 생산비 조사 요약 보고서를 증정합니다.
- ④ 생산비 조사원은 별도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 ⑤ 기타 상세한것은 천주교 전주교구청(전화 ④2935) 으로 문의 바람

요심이 (380) 김병호



□정확 미용학원 학생모집□

윤경미장원

최윤경 미용실
(신부회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역전 앞
최 윤 경(유리안다)
전화 ②8653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칠,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주 직매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딩)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③2377번

학용품 · 사무용품 도산매
시 민 노트 사
소망서 뒤편 중앙시장 입구
주. 강 영 옥(로모헤드)
전화 ① 2 6 2 2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백 제 공 예
주 이 현 수(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 양심을 찾자 ★
카메라대여 학교앨범 각종사진 출사
이리 중앙칼라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② 7 9 0 1
③ 1 2 7 0
한 원 규 (야고버)

□ 직원 모집 공고

1. 모집부분 : 일반직 약간명(남)
2. 응모자격
① 고졸이상 30세미만의 남자로서 군필 또는 면제자
- ② 주산·부기 자격증소지자 우대
3.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당조합 소정양식)
② 자필이력서 1부 ③ 명함판사진 2매 ④ 최종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⑤ 병역명 또는 면제 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 등본 1부 ⑦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1부
4. 원서 제출기간
80년 11월 10일~20일 17시까지
5. 시험과목
① 필기 : 국어, 국사, 상식, 논문
② 면접 : 필기시험 합격자
6. 시험일시 및 장소
80년 11월 22일 오전 10시 당 조합
7. 기타 : ① 접수원서류 반환치않음
② 상세한것은 응모공고에 문의바람

김제 신용 협동 조합
이사장 김영옥 전화4811·4812번
김제군 김계읍 요촌리 172번지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김재덕 주교님 12일 귀국...로마 교황청 방문 및 구라과, 교회 순방차 10월 8일 출국하셨던 주교님께서 무사히 돌아 오셨습니다.

1. 오늘은 평신도 주일...특별히 많은 정성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 4회 지구 중·고등학생 성가 경연대회 및 잠소변경...11월 23일 오후 2시, 중앙성당에서
3.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및 단위대 선배모임...11월 23일 오전 10시, 가톨릭센터에서 회비-2천원, 대학생 연합회와 단위대 학생회에서 활동하던 회장단 및 임원단의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꼭 참석 바랍니다.
4. 농민회 이사 분회장 연석회의...11월 20일 오전 11시, 가톨릭센터에서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5. 치명탐 원고 모집...12월 5일까지, 대상-중·고등학생 신자 및 예비신자, 원고내용-시, 수필, 소설, 서간문, 기행문, 탐방기, Cell 자랑 등 보내실 곳-520,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중·고등학생회 앞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희
보좌 신부 임기성
사도 회장 박기성

□ 지난주 봉헌금 : 248,05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별환
사도 회장 한철수

1. 가정방문 : 18일 (4반), 19일 (5반), 21일 (6반) 반장님들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본당에 교적이 없는 가정에 관심음...
 2. 할머니회 : 공식미사후
 3. 사도회 임원 중심 새 Pr 모임 : 공식미사후 (회합실)
 4. 나환자촌 방문 : 한철 장지원
 5.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강기호 ②김태수, 신자들의 기도-김광수
- 지난주 봉헌금 : 140,905원 교무금 : 111,500원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준근
사도 회장 박준근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제11차 성령세미나 개최 : 내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100명만 접수하겠습니다 (접수-17일 오후1시)
 2. 제 2차 성서 강의 : 18일부터 매주 (화) 저녁 7시30분~9시30분 오늘중에 사무실에 접수바람
 3. 애령회 정기총회 : 오늘 공식미사후
 4. 수녀님들을 위한 성서특강 : 매주 (월) 오후2시~4시
 5. 금주의 성경 읽기 : 구약의 에스델 전체
 6. 축! 청년 성가대 발족 : 본당에 청년 성가대 남·여 혼성 (모임 : 매주 공식미사후)
 7. 교무금 납입 현황판 게시 : 80년도 교무금 납입 실적을 성당 입구에 게시했습니다. 아직 완납하지 못한 신분은 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15,76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기
보좌 신부 김유석
사도 회장 유석송

1. 꼬미시음 : 오후2시
 2. 학생회 임원회의 : 오후3시 (자 cell임원 꼭참석할것)
 3. 수녀원 및 소강당 신축기금 신입액
금주 신입액-2,947,000원, 총누계-4,677,000원
※ 신자들의 계속 협조 바랍니다
내주신분들 : 오예환 (토용센터) 김병오·최덕순·이덕수·박도식·김복윤·조준영·김종오·이준영·열광철 (각 100,000원), 김인찬·안득수·양현홍·김남수 (각 200,000원), 범창규 (150,000원)
지면관계로 다음주에 계속
 4. 다음주 (18~21일) 가정방문 : 풍남동·경원동 25~28일 : 동교동
 5. 오늘의 전례담당 (16일)
아침미사 : 사회-이진홍, 독서-①최병래 ②박중구
공식미사 : 사회-이영자, 독서-①김병오 ②박준기
저녁미사 : 사회-강양수, 독서-①이진홍 ②임순단
 6. 다음주 전례담당 23
아침미사 : 사회-박중구, 독서-①이진홍 ②김대원
공식미사 : 사회-양현홍, 독서-①이준영 ②고수창
저녁미사 : 사회-김윤주, 독서-①이영철 ①정동희
- 지난주 봉헌금 : 355,82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오
사도 회장 양상열

1. 주일학교 교리-2시, 미사-3시, 부모님의 관심과 협조를...
 2. 중·고등학생은 주일 오전 9시 미사에 참석하세요
 3. 공소 판공 일정
18일~19일-내동리공소, 19일-동산촌공소, 25~26일-미산리공소, 26일~27일-전당리공소
 4. 가정방문 : 18일부터 12월20일까지 (각공소 및 본당)
 5. 각 분파 81년 계획 및 예산 편성은 11월 23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6. 80년도 봉헌금을 이달 중으로 꼭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어려움이 매우 큼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16,34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조성호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협

1. 사도회 임시회의 : 오늘 공식미사후
2. 병자 봉성체 : 18일 (화·수)
3. 가정방문 누락자 접수 : 다음주일까지 사무실에
4. 예비교사 수험생을 위한 미사
19일 (수) 저녁 7시30분 (세벽미사 있습니다)
5. 본당 청년회 조직을 위한 예비모임 : 23일 공식미사후
6. 판공 성사 일정
12월3일 (수) 오전10~12시, 오후3시~5시-다가동·태평동·진북동, 4일 (목) 오전10~12시, 오후3시~5시-중앙동·교사동, 5일 (금) 오전10~12시, 오후3~5시-완산동, 6일 (토) 오전10~12시, 오후3~5시-학생회 직장인
7. 오늘은 평신도의 주일 : 특별헌금 있습니다

1. 첫 영성체 교리반 시작 : 11월17일
 2. 미사시간 변경 : 아침 6시30분에서 7시로, 저녁 7시30분에서 7시로
 3. 가정방문 : 19일-서완산 북부, 21일-효자1단지 에그림아파트 성당 주변 주택
 4. 사도들의 모후 (청년팀) 뿌레시디움 탄생 축하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86,345원 교무금 : 42,700원 어린이헌금 : 1,710원